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9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 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얼음 깨기

## 나의 기도 생활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의 바쁜 삶 속에 기도의 중요성이 점점 묻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1.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최고의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요?

2. 아직도 기도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제목이 있다면?

## 경배 찬양

##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독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 소식

### 1. 임직

더온누리 공동체를 섬기는 항준 직분(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에 대한 기준과 일정을 사전에 공유하여 준비하도록, 자격 기준을 칼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팝업과 교회소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안수집사회

안수집사회에서 하반기 교인소식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교인들의 글이나 사진을싣는 교인들의 간행물입니다. 시나 수필 간증문 기행문 등 함께 공유하고 싶은 글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서기 전성기 집사 010-7115-4534)

## 교회행사

### 9월

5일 향기로운 금요일 시작  
7일 진공첫 5기 시작  
어와나 2학기 개강  
21일 풍삶기 2기 시작

### 10월

6~9일 추석 연휴  
12~15일 가을 사경회  
18일 더비기닝 선교학교 개강  
26일 종교 개혁 주일  
진공첫 5기 종강

## 선교

## [임장백 선교사]

### 일본

1.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과 사역이 되기를
2. 10월 말에 예정된 시가리브소나타(전도집회)를 축복하시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3. 11월에 있을 강촌공동체의 아웃리치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는 시간되게 하소서.
4. 11월에 예정된 집회(오시카, 교토인근교회들 연합전도, 천양집회) 등에 좋은 열매들이 지역교회들에 맺어지게 하소서
5. 오시하라 스구루형제님이 모든 훈련을 잘 김당하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주시도록 동원 영입사역에 좋은 열매들이 풍성해지기를...
6. 가을에 예정된 모든 사역에도 좋은 만남과 열매가 있기를

## 한문장 큰 울림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는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데드라인은 없다.  
그저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잠잠히,  
안정을 취할 뿐이다.”

-A.W 토저-

##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시나이다 – 역대하 6장 14절 –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20절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며, 21~25절까지 내용은 솔로몬의 7가지 기도 가운데 1~2번째 기도 제목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 하듯이 우리도 “더운누리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 1.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4절) 하신 그 약속이 긴 세월을 거쳐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셨나이다” (15절)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증거하는 살아 있는 표징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사람의 계획이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약속을 따라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의 삶 또한 그분의 언약 속에 이루어져 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입니다.

**[나눔] 나는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 2.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21절에서 39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7개의 기도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관용구는 “주께서 들으시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19~21절 구절마다 “듣다(샤마)” 동사가 반복되며, 들으시는 하나님에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샤마”는 “경청하다”는 더 진중한 의미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기도의 히브리어는 ‘테필라’인데, 당연하고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드리는 기도이며, 본문의 간구의 히브리어는 ‘태힌나’인데 울부짖을 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께서 성전에 향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백성들이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도,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간구도,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며,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인내와 소망을 주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는 자리였고,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를 이어가는 곳입니다.

**[나눔] 나는 지금 기도할 때 평안할 때의 기도(테필라)하고 있는가? 고난 중에 울부짖는 기도(태힌나)를 하고 있는가?**

## 3. 응답하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5장 14~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간절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새겨야 할 말씀은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더운누리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구원받은 풍성한 삶이 곧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의 증거와 증인이 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이 그치지 않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침, 저녁, 향금의 기도자리가 그래서 소중합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은 곧 구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언제나, 하늘을 향해 손을 펴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손의 권능이 전능하시니까. 우리 이런 교회 함께 세워길 원합니다.